숯 제조 재현과정과 현재적 의미 탐구*
— 제주지역의 곰숯 제조를 사례로 —

정광중**

Ⅰ. 서론
Ⅱ. 곰숯의 의미와 곰숯 가마의 일반적 현황
Ⅲ.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 준비과정과 재현과정
Ⅳ. 곰숯 제조 재현의 현재적 의미
Ⅴ.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60년대까지 제주도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행해지던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일련의 공정과 특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동시에 현재적 시점에서 곰숯 제조에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곰숯은 1960년대 초까지 제주도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던 숯의 한 종류로서, 곰숯을 제조하는 곰숯 가마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여성들도 손쉽게 축조하여 숯을 제조할 수 있는 숯가마로 평가된다. 둘째로, 곰숯 가마의 축조를 통해 재현한 곰숯 제조과정은 크게 사전 준비 과정과 본격적인 숯 제조과정으로

---

* 이 논문은 2015년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발주한 위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결과의 일부이다.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찬수 소장과 최형순 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사전 준비 과정은 도구 및 재료(숯 재료, 귀밀) 챙기기, 숯가마 터 선정과 땅고르기, 숯 재료 운반 및 확보 등이 중심이며, 본격적인 숯 제조과정은 숯 재료 쌓기와 곰숯 가마 축조—불 때기, 아궁이 차단 및 배연구 차단—곰숯 가마 해체 및 숯 꺼내기 순으로 행해졌다.

이어서 곰숯 제조의 재현에 함축된 현재적 의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곰숯 제조의 재현을 통한 생활문화 자료의 구체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주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던 숯 제조과정에 대한 단계별 공정의 복원을 통해 과거 제주지역의 경제활동과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역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곰숯 제조의 재현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찾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선조들의 자연자원 이용방식은 물론이고 숯 제조를 통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후세대들의 현대적인 삶 속에서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숯 제조 재현의 함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선조들의 생활문화의 복원을 통해 제주문화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도, 곰숯, 곰숯 가마, 숯 제조 재현, 제주 문화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숯은 과거나 현재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현시점에서는 숯이 살균제나 제습제, 방부제와 탈취제, 목욕제 및 장식제 등의 용도로 다변화되고 있다.[1] 심지어는 숯을 감기나 부종, 위궤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2] 그만큼 숯은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도 깊게 자

---

1)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숯"의 무궁무진한 비밀-숯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산림경영』 195, 2010, 20쪽.

2) 새가정사 편집부, 「숯이 건강에 유익하다」, 『새가정』 501, 1999, 122-123쪽.

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숯 생산도 현대화되어 대규모의 생산 체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최근의 숯 생산 동향은 현대화 및 대형화된 숯가마에서 참숯을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개인에 의한 생산보다는 법인체를 이루거나 기업화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최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마다 인구증가가 현저해지면서 숯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1960년대 이전까지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의 과거형 숯가마는 좀처럼 접하기 힘들어졌고 더불어 과거의 숯 제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매우 난해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본고는 전통적인 숯 제조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방식대로 숯 제조과정을 재현함으로써 각 단계별 공정과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록 정리하고, 그에 따른 숯 제조 재현의 의미를 나름대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1960년대까지 제주지역에서 행해졌던 곰숯[3] 제조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곰숯 제조 방식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문화현상의 후대 전승을 위한 생활문화 자료의 축적과 함께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확보하는데 있다.

조선시대 이후 1960년대까지 제주지역의 숯 제조 방식과 일련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홍(1998), 정광중(2015) 및 정광중 외(2013)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조차도 과거의 숯 제조 방식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제주지역에서도 동서남북 방향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어떤 종류의 숯을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숯을 제조하는 기술과 경험의 축적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숯을 제조하는 기술과 경험의 축적 정도는 1960년대까지 교통로와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

3)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곰숯'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곰숯'이란 고유명사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숯 제조나 숯가마의 축조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숯'이란 일반명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의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반도부에서 행해졌던 숯 제조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민일(1988)을 비롯한 박봉우(1995)와 권혁준(2004)의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박민일과 권혁준의 연구는 주로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숯가마의 축조와 그에 따른 산업민요의 특성을 논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박봉우의 연구에서는 참나무 숯의 기능과 특성을 토대로 숯 제조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4] 이들 연구결과는 본 연구과정에서 직접 비교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숯가마 축조 과정이나 단계별 공정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동향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과거 제주 중산간 마을인 한경면 청수리에서 행해지던 곰숯 제조과정을 과거의 방식대로 재현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수리에서 행하던 숯 제조 방식은 크게 곰숯과 말숯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초보적인 숯 제조 방식인 곰숯 제조 방식을 선택하여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1차적으로는 실외에서 행하는 전통적인 곰숯 제조과정의 재현 상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록함과 동시에 각 작업공정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특히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을 전제할 때 각 단계별 공정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연결되는 작업이 많은 관계로 영상촬영은 필수적이었으며, 재현된 영상은 분석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에서 작

---

4) 박봉우, 「참나무 숯-참나무와 우리생활-」, 숲과문화연구회 편, 『숲과 문화(총서)』, 1995, 235-238쪽: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숯 제조과정을 가마 만들기-나무 넣기- 불 때기-숯 꺼내기-포장하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숯 제조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이 다소 느슨해지는 공정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두 어르신(이하 장인)에게 청취조사하면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림 1〉 강○홍 장인(좌측)과 고○구(우측) 장인

2차 실내 작업에서는 이미 기록한 내용과 사진 및 영상자료를 서로 비교분석하면서 단계별로 구제적인 작업 공정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단계별 작업공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사항이나 부차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차 청취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는 절차를 밟았다.

전통적인 곰숯 제조과정에 대한 재현은 청수리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곰숯 제조를 경험했던 장인 두 분을 섭외하여 부탁하고(그림 1, 표 1), 재현하는 장소선정과 함께 곰숯 재료인 종가시나무의 일정량을 준비하도록 협의 하에 진행하였다.[5] 그리고 실질적인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은 2015년 6월 6~7일 이틀에 거쳐 행해졌으며, 곰숯 제조 당일에는 마을 어른 한 분이 자발적인 참여로 일시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곰숯 제조의 재현 장소는 주책임자인 강○홍 장인의 장남이 소유하는 전지(청수리 2156번지, 1,200평, 태양광 시설 설치) 앞 공터를 선정하였으며, 곰숯 제조의 재현에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 재현 전날까지 미리 준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1〉 곰숯 제조 재현에 참여한 청수리 두 장인의 신상과 역할

이 름	연령(세)	현 직책	역할	거주지
강○홍	71	청수리 노인회장	주 책임자	청수리 본동
고○구	77	청수리 노인회원	부 책임자	청수리 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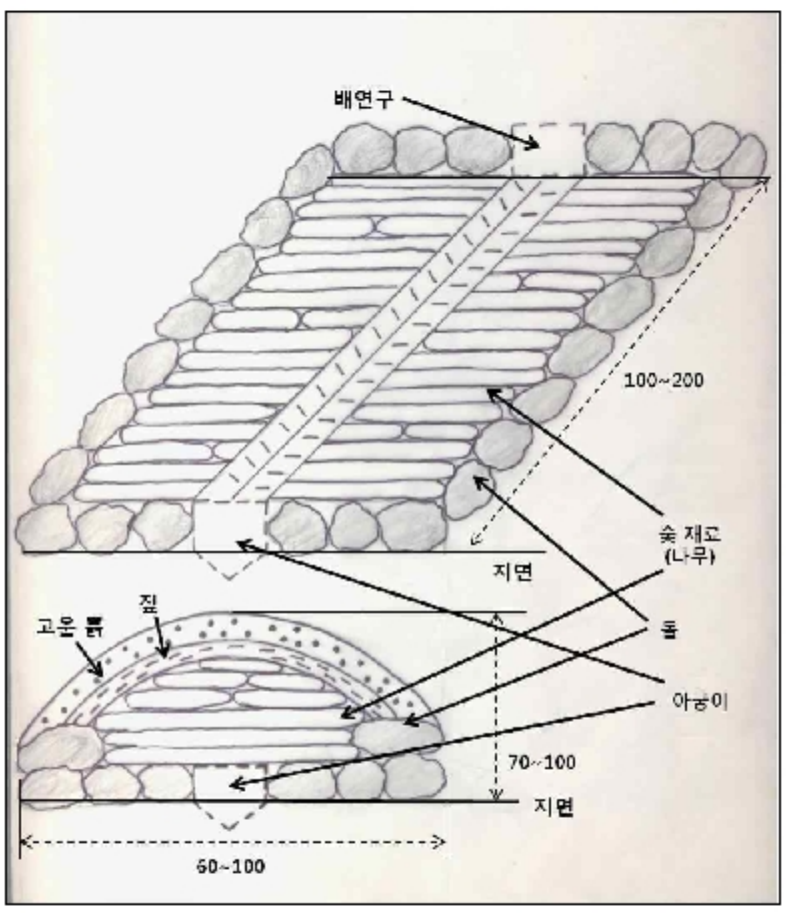
자료: 청취조사(2015년 6월)에 의해 작성.

5) 전통적인 숯 생산 재현과 관련된 사전 협의는 청수리 노인회장인 강○홍씨(71세)를 전화상으로 먼저섭외한 후에 2015년 5월 17일(일)에 마을회관에서 직접 만나, 같이 참여할 동료 선정, 소요 경비, 재현 장소 선정 그리고 숯 재료 확보 등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나아가 일부 모자란 숯 재료는 재현 당일에 강○홍 장인의 장남이 소유하는 또 다른 전지(청수리 2145번지, 600평, 감귤 과수원)의 가장자리에 식재된 종가시나무를 베어 충당하였다.

Ⅱ. 곰숯의 의미와 곰숯 가마의 일반적 현황

1. 곰숯의 의미와 특징



〈그림 2〉 곰숯 가마의 개념도
(평면도 및 정면도, 단위: cm)
자료: 정광중(2015: 101)의
자료를 인용.

곰숯은 제주도 서부지역에 위치한 청수리, 저지리 및 산양리 등 여러 주변 마을주민들이 해방 이후 혹은 제주4·3 사건(1948년 4월)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보편적으로 제조하던 숯의 한 종류이다. 여기서 왜 곰숯이란 이름이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숯을 제조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미 정광중(201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숯가마를 축조한 후 처음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곰'이라 칭하기 때문에 곰숯이라는 의견과 직사각형의 숯가마 내부 중앙에 불이 골고루 잘 번지도록 10cm 미만의 V자형 홈을 파게 되는데, 이 홈을 '곰'이라 하여 곰숯이라 한다는 의견으로 압축할 수 있다. 더불어 곰숯과는 대비되는 숯의 한 형태가 말숯(또는 작대기숯)이다.[6]

---

6) 말숯(또는 작대기숯)은 곰숯과는 달리 숯가마를 지면부에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쌓아올리고 상부는 아치형을 취하는 숯가마에서 생산한 숯을 말하는데, 이 중 말숯은 숯 재료를 쌓아올릴 때 지면에서부터 상부까지 눕혀서 쌓아올려서 구워낸 숯이고, 반면에 작대기숯은 지면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세워서 구워낸 숯을 가리킨다.

곰숯은 이를 테면 곰숯 가마에서 구워낸 숯을 말하는데, 곰숯 가마는 비교적 간편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배워서 숯을 생산할 수 있는 숯가마로 알려진다.[7] 이처럼 곰숯 제조나 곰숯 가마의 축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초보자들도 축조할 수 있다는 배경은 과거에 청수리를 비롯한 저지리와 산양리 등 주변 마을의 여성들도 손쉽게 곰숯 가마를 축조하여 곰숯을 제조할 수 있었다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8]

그러나 많은 경험을 했던 여러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곰숯 가마의 경우는 숯 재료가 참나무 계통이 아니라 다양한 수종이 섞여 있거나 나무의 굵기도 여느 때와 달리 얇은 것들이 주를 이룰 때, 게다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숯을 시장으로 내다 팔려고 할 때 주로 제조했다는 것이다. 결국 곰숯 가마 자체는 양질의 숯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숯가마이고, 그만큼 숯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인 조건도 많이 떨어지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2. 곰숯 가마의 일반적 현황

곰숯 가마의 일반적 현황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선 연구(2015)에서 상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히 일반적인 현황만을 약술하고자 한다. 일단 곰숯 가마의 일반적인 현황을 이해해야만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에 따른 상황과 특징을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곰숯 가마의 평면도와 정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평면도 상에서 보면 곰숯 가마는 지면부가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띠면서 전면부와 후면부 중앙에 아궁이와 배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상으로는 장축과 단축의 길이 비율이 평균 수치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축은 단축이 약 1.5~2.2배의 길이로 축조된다. 물론 여기서 장축의 길이가 유동적인 것은 숯 재료인 나무의 확보 량에 따라서 조절

---

7) 정광중, 「저지-청수곶자왈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숯 생산활동」, 『문화역사지리』 27(1), 2015, 101쪽.

8) 국립산림과학원, 「곶자왈의 역사유적 및 문화자원 가치 평가와 활용 연구」, 『2014 위탁연구 과제 보고서』, 국립산림과학원, 2014, 203-236쪽.

되는 것이다. 또한 곰숯 가마의 경우는 장축의 길이가 짧으면 결과적으로 숯 재료는 상하로만 높게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숯 제조과정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면 중앙부에 V자형 홈은 현지에서는 '곰'이라 부르는데, 아궁이에서부터 불을 지피면 후면부까지 火氣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깊이는 10cm 미만이나 경험자에 따라서는 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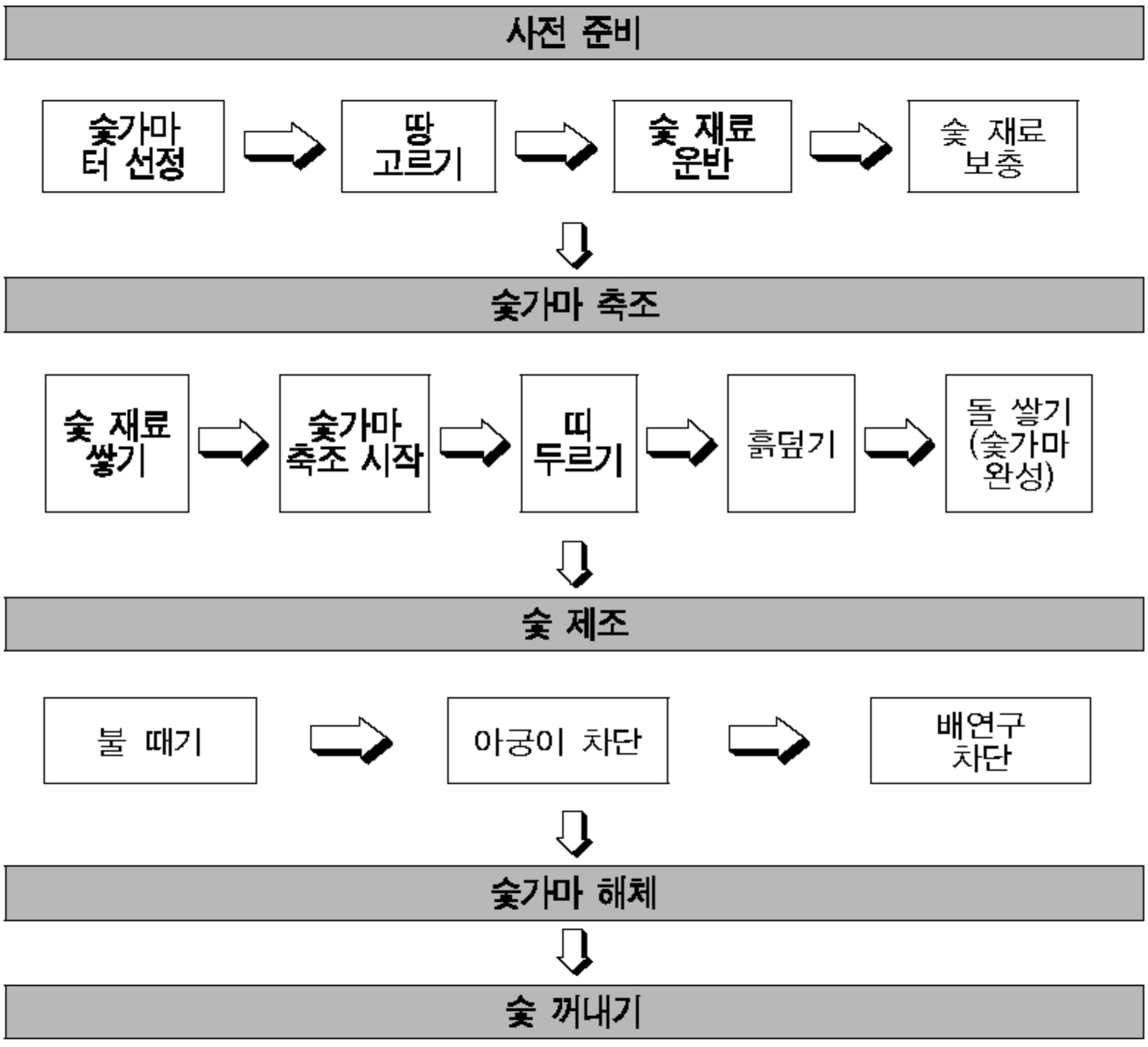
한편 정면도에서 볼 때 곰숯 가마는 전체적으로 아치형을 취하며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70~100cm를 보인다. 그리고 곰숯 가마의 주변부에 쌓아올리는 돌은 기본적으로 측면부와 상부에 쌓아올린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험자에 따라 1~2단만 쌓아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숯가마 자체를 안전하게 쌓기 위하여 4~5단까지 다소 높게 쌓아올리는 경우도 있다. 숯 재료의 바깥쪽을 감싸는 짚(또는 띠)은 기본적으로 짚 밖으로 쌓아올리는 흙이 숯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차단제의 기능을 띠고 있다.

짚이나 띠는 대개 집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소 모자란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그 일부를 조달하기도 한다. 곰숯 가마의 표면부를 덮는 흙의 두께는 확보한 숯 재료의 양과 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개는 10~20cm 정도의 두께이다. 또 흙은 가능한 한 고운 흙으로 사용해야만 연기나 공기를 차단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돌멩이와 기타 이물질 등을 골라내는 작업이 동반된다.

Ⅲ.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 준비과정과 재현과정

여기서는 한경면 청수리에 거주하는 두 장인에 의해 2일 동안 행해진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과정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그림 3). 아울러 각 단계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곰숯 제조과정에서 청취한 내용과 그 이후에 다시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재청취한 내용을 가미한 후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된 내용까지 첨부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곰숯 제조와 관련된 두 장인과의 사전 협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정리하

였기 때문에 바로 곰숯 제조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에서 숯 재료의 대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다소 모자란 숯 재료를 강O홍 장인의 장남이 소유하는 과수원의 종가시나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일부나마 숯 재료 확보에 대한 실상을 정리할 수 있었다.9)



〈그림 3〉 숯 제조 준비와 재현과정(곰숯 가마)

9) 본고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숯 제조의 재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작업순서는 과거 주민들이 곶자왈이나 오름 등지에서 직접 숯 제조를 행하던 순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곰숯 제조의 재현 현장과 종가시나무를 베어낸 **田地**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00**여 **m** 떨어져 있다.

1. 곰숯 제조의 사전 준비

1) 도구 및 재료(숯 재료, 귀밀) 챙기기

사전 준비는 당일(2015년 6월 6일 오전 7시)에 강○홍 장인의 집에서 고○구 장인이 합류한 후에 <그림 4>와 같이 톱, 괭이 삽과 숯 재료를 감싸기 위한 마른 귀밀(귀리, 목초로 짚 대신 사용할 재료) 등을 챙기는 것으로 정리된다. 강○홍 장인의 집에서 재현 현장(청수리 2156번지 앞 공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0여m 떨어져 있으며, 두 장인은 숯 재료와 귀밀, 도구 등을 챙기고 경운기를 이용하여 재현 현장까지 이동하였다. 본 연구자와는 재현 현장에서 8시 경에 합류하였다.[10]

2) 숯가마 터 선정과 땅 고르기

재현 현장에 도착한 두 장인은 곰숯 제조 재현 장소에 터를 잡고 지면을 약 10cm 정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파낸 다음 그 내부에 있는 돌멩이들을 골라내며 지면을 평평히 했다. 돌멩이를 골라내고 지면을 고르는 작업은 그 위로 숯 재료를 쉽게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숯 재료를 쌓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주변에서 아궁이와 배연구에 사용할 돌 6개(아궁이 3개, 배연구 3개)를 골라내어 일단 가마터 근처에 모아두었다(그림 5).[11]

3) 숯 재료 운반 및 확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사실상 숯 재료는 협의과정에서 숯 제조 재현 전날에 대부분을 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그 이유는 숯 제조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 중 하나가 숯 재료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대로 곰숯 재료를 확보하는 데는 적어도 6~1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숯 제조 당일에 필요한 양의 숯 재료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10) 그러나 실제로 곰숯 제조의 재현은 의뢰한 영상 촬영 팀이 9시를 넘겨 도착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

11) 아궁이와 배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돌은 주변에 버려진 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다. 결국 대부분의 숯 재료는 강○흥 장인이 집안에 보관하던 종가시나무를 비롯하여 일부 마른 소나무와 감귤나무를 준비하였고(그림 6)[12], 또 일부는 숯 제조 재현 당일에 강○흥 장인의 장남이 소유하는 과수원(청수리 2145번지)의 종가시나무를 베어내어 보충하였다(그림 7).

일부 부족한 숯 재료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강○흥 장인의 장남이 전기톱으로 종가시나무의 큰 줄기를 베어내고 두 장인이 호미와 나대(매호미)로 잔가지를 친 다음 약 1~1.5m 정도의 길이로 운반하기 쉽게 잘라내었다.[13] 베어낸 종가시나무 숯 재료는 직경 약 7~10cm 정도였으며, 양은 약 40kg 정도였다.[14] 이들 숯 재료는 경운기로 재현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그리고 강○흥 장인의 자택에 보관하던 숯 재료는 굵기와 길이에 따라 미리 쪼개거나 곰숯 가마의 너비에 맞게 절단된 상태였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곰숯 제조의 재현 준비는 완료되었다.



〈그림 6〉 강○흥 장인 댁에 보관 중이던 숯 재료



〈그림 7〉 곰숯 제조 당일 보충하는 숯 재료

---

12) 여기서 일부 마른 소나무와 감귤나무는 종가시나무가 베어낸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숯가마 내부에서 숯 재료들이 잘 타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촉진제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마른 감귤나무는 평소 장남이 소유하는 과수원의 간벌작업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13) 숯 재료로 충당할 줄기를 본 가지에서 잘라내는 데는 전기톱을 사용하였는데, 1960년대 이전 시기에는 전기톱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개 일반 톱(구형)이나 나대(매호미) 등을 사용하였다.

14) 곰숯 제조의 재현에 사용된 숯 재료 전체의 양은 이보다 6~7배가 더 많은 240~280kg이었다.

2.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 재현과정

1) 숯 재료 쌓기와 곰숯 가마 축조

① 아궁이, 배연구 설치 및 숯 재료 쌓기

숯 제조 재현은 앞서 정한 곰숯 가마터에서 숯 재료를 굵기에 따라 분류하며 자르는 작업(고○구 장인)과, 아궁이와 배연구를 설치할 자리에 흙을 고르며 돌을 얹히는 작업(강○홍 장인)부터 시작되었다(그림 5). 숯 재료는 굵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숯가마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숯 재료를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굵고 얇은 숯 재료의 위치를 고려하며 쌓아올려야 한다. 즉 얇은 숯 재료는 아궁이 앞쪽을 시작으로 중간과 뒤쪽에 그리고 일부는 위쪽으로도 배치시켜 어느 한쪽만 불이 타다가 꺼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워야 했다. 숯 재료는 곰숯 가마의 양쪽 너비에 맞추어 약 50cm 정도의 길이로 잘라냈으며, 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2개를 서로 이어서 한 줄로 쌓아올렸다.

본격적인 숯가마 축조의 시작은 아궁이(궁기라고도 함)와 배연구용 2개의 돌을 각각 좌우에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아궁이 쪽부터 약 25~30cm 길이의 현무암 돌 2개를 좌우에 잘 고정한 다음 아궁이용 윗돌을 얹혔다. 그리고 배연구 쪽에도 비슷한 크기의 돌 2개를 좌우로 고정했는데, 이때 배연구 쪽의 덮개용 돌은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15] 이어서 직경 약 10cm, 길이 약 110~120cm 정도의 곧고 굵은 나무 2개를 숯가마 터의 장축 방향의 가장자리 양쪽으로 설치했다. 다시 말해 앞쪽 아궁이용 2개의 돌과 뒤쪽 배연구로 사용할 2개의 돌 사이를 평행하게 연결하듯이 설치한 것이다(그림 8). 2개의 굵은 나무를 바닥에 설치하는 이유는 숯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래쪽에 재운 숯 재료들이 제대로 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숯 재료는 아궁이쪽에서부터 쌓기 시작하여 뒤쪽으로 이어가며 쌓았으며, 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 단씩 층을 더해가며 쌓아올렸다. 숯 재료 쌓기에서의 요령은 일단 아래쪽에는 비교적 얇은 숯 재료로 1~2

---

15) 배연구의 덮개돌은 숯 재료를 앞에서 뒤쪽으로 모두 쌓아올린 후에 덮었다.

단 정도 재우고 그 위로 굵은 숯 재료들을 쌓아올리되, 중간 중간에 다시 얇은 숯 재료를 넣는 것이다. 그리고 아궁이쪽으로는 물기가 없는 마른 숯 재료를 쌓아서 불이 잘 붙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숯 재료 쌓기에서는 숯가마 내부로 불이 옮겨 붙은 이후에 숯 재료들이 골고루 잘 타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다. 숯 재료 쌓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숯 재료는 장축방향으로 아치형을 이루는데, 이것은 숯 재료들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安息角**으로 판단된다(그림 **9**).



〈그림 8〉 곰숯 가마 하단부에 통나무 설치하기



〈그림 9〉 숯 재료를 쌓아올린 최종 모습

② 띠(귀밀) 두르기, 흙덮기와 돌쌓기

숯 재료를 쌓은 이후에는 띠 두르기를 시작으로 흙덮기와 돌쌓기 작업이 이어졌는데 이들 공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거의 동시에 행해졌다. 다시 말하면 귀밀을 세워 숯 재료를 감싸면서 동시에 밖으로 흙을 쌓고, 또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가장자리에는 돌을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숯 재료를 감싸는 재료는 과거에는 주로 제주초가에 사용되는 띠를 사용했지만, 숯 제조 재현 단계에서는 띠를 구할 수가 없어 마른 귀밀을 사용하였다. 먼저 띠 두르기는 숯 재료를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귀밀을 숯 재료에 붙이며 휘감았다. 귀밀의 길이는 약 **80~100cm** 정도인데 **4**방향의 측면은 귀밀을 세워 올리면서 숯 재료를 감싸고, 상부의 경우에는 귀밀을 다소 두툼하게 눕혀서 숯 재료를 감쌌다(그림 **10**). 귀밀로 숯 재료를 감싸는 근본적인 이유는 숯가마의 외부를 전체적으로 덮는 흙이 숯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귀밀

은 숯 재료들이 흙과 접촉하여 연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차단제인 셈이다.

흙과 돌은 기본적으로 숯가마의 외형(틀)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들이기도 하다.[16] 따라서 흙은 외부 공기와의 차단을 위한 기능을 띠면서도 외형을 유지하고, 돌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보호대의 기능을 겸한다. 흙은 약 10~15cm 정도가 되도록 두껍게 덮었으며, 이때 삽이나 괭이로 흙의 표면을 계속 두들기면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흙에 섞여 있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은 전부 골라내며 사용하였다(그림 11). 흙을 운반하는 데는 감귤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했으며, 숯가마 전체를 축조하는 데는 컨테이너 박스 1개당 대략 2/3 정도의 흙을 채운 상태에서 25개 분량을 소모하였다. 숯가마 축조에 사용된 흙은 이전에 본 연구자가 조사한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 돌은 주변에서 주어온 돌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작은 것은 장변이 15~20cm, 큰 것은 장변이 30~35cm의 것들이었다. 돌은 지면에서 대개 4단 높이까지 쌓아올렸는데, 측면부의 흙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또 상부에 덮은 흙이 지면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된다(그림 12).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 곰숯 가마는 완성되었다.



〈그림 10〉 숯 재료에 띠 두르기, 흙덮기, 돌쌓기



〈그림 11〉 돌멩이 골라내기

16) 숯 제조의 재현에 필요한 흙과 돌은 주변에서 쉽게 조달하였는데, 몇 년 전에 마을 농로와 마을 제단(포제단) 등을 정비하면서 한쪽 편에 적재되어 있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림 12〉 완성된 곰숯 가마

곰숯 가마가 완성된 시점에서 부분별로 측정한 제원은 <표 2>와 같다. 즉 곰숯 가마의 장변은 180~190cm, 단변은 135cm, 높이는 100cm이고, 중간부의 둘레는 500cm로 축조되었다. 또 지면에서 4단까지 쌓아올린 돌까지의 높이는 70cm, 그리고 아궁이는 가로 30cm, 세로 25cm 배연구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아궁이에 비해서는 배연구가 다소 높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처음에 두 장인이 협동으로 숯 재료를 구분하고 숯가마 터를 고르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곰숯 가마가 완성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7분이었다.

〈표 2〉 곰숯 가마의 제원과 부분별 제원

측정 부위	측정 수치(cm)	비 고
장변(가로)	180~190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을 기준
단변(세로)	135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을 기준
높이	100	지면 - 숯가마 최상부를 기준
하단부 둘레	590	가장 아래쪽에 쌓은 돌을 기준
중간부 둘레	500	—
지면-돌을 쌓은 지점까지의 높이	70	—
아궁이(앞)(가로 / 세로)	30 / 25	중간 지점 기준
배연구(뒤)(가로 / 세로)	40 / 30	중간 지점 기준

자료: 재현된 곰숯 가마의 측정 결과.

2) 불 때기, 아궁이 차단 및 배연구 차단

① 불 때기

곰숯 가마가 완성되고 나서 두 장인은 10여분 휴식을 취한 후에 불



〈그림 13〉 측면부와 상부로부터 연기가 새는 모습

피우기 작업에 들어갔다. 처음 몇 분 동안 아궁이 안에다 헝겊과 마른 잔 나뭇가지, 귀밀 등을 넣고 석유를 뿌려 불을 붙였지만, 좀처럼 불씨가 숯가마 내부로 옮겨 붙지 않았다. 두 장인이 번갈아가며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한 끝에 드디어 숯가마 내부로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숯가마 내부로 타들어가기까지는 **24**분이나 소요되었다. 더불어 불씨가 숯가마 내부로 번지기 시작하자 숯가마의 측면부나 상부로부터는 연기가 새어 나왔는데(그림 **13**), 이때는 불씨가 숯가마 내부로 서서히 번져나가는 것을 우선시 하여 덮은 흙의 측면부나 상부를 두들기는 작업은 실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점까지는 외부와의 공기 소통을 통해 불씨가 숯 재료에 옮겨 붙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② 아궁이 차단

숯가마 내부로 완전히 불이 번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일단 불 때기 작업을 중단했다(그림 **14**). 이어서 아궁이 차단 작업에 들어갔는데 먼저 아궁이의 덮개돌을 빼내고 그 주변에 쌓은 흙과 돌의 일부분을 괭이로 헐어냈다. 이때는 이미 숯가마 내부로 불이 많이 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빨리 많은 양의 흙을 보토하면서 다시 아궁이 주변부를 돌로 틀어막아야 했다(그림 **15**).[17] 더불어 작업과정에서는 불씨가 숯가마 밖으로 피어올라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괭이를 사용하여 흙을 보토하고 돌을 움직여서 아궁이 차단 작업에 임해야 했다. 그리고 처음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여 아궁이를 틀어막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25**분이었다.

아궁이를 차단하고 난 후에는 숯가마의 측면부와 상부에서 연기가 새

---

17) 아궁이를 차단하는 데는 처음에 빼냈던 아궁이 덮개돌이나 좌우측에 세웠던 돌 모두를 재활용한다.

어나왔는데,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보토하며 괭이와 삽으로 두들기는 작업이 이어졌다. 말하자면 숯가마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화력이 높아지게 되면 숯 재료가 한꺼번에 타들어가서 순식간에 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숯가마 내부가 서서히 타들어가게 되면, 숯가마 내부의 부피가 감소하게 때문에 측면부나 상부의 어느 한 곳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도 하였다. 이때도 재빨리 보토하면서 숯가마의 외형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만 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측면부와 상부에서 숯가마 내부가 가라앉아 2번이나 보수작업을 행하였다(그림 16). 그리고 숯가마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숯 재료는 자체적으로 연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연구에서 큰 불빛이 보이는 시점까지는 그대로 놔두었다.



〈그림 14〉 불 때기 중단



〈그림 15〉 아궁이 차단



〈그림 16〉 곰숯 가마 보수작업

③ 배연구 차단

아궁이를 틀어막은 후부터 숯가마 내부의 숯 재료가 자체적으로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장인도 이후부터는 다소 여유로움을 가지고 휴식에 들어갔다. 배연구 차단 작업은 숯가마 후면부에 설치된 배연구에서 많은 연기가 빠져나온 후에 시뻘건 불길이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배연구로부터 큰 불길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숯가마 내부의 숯 재료들이 자체적으로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배연구로부터 엄청난 연기가 빠져나오는 시간은 대략 같은 날 오후 7시경이었는데(그림 17), 이 시점에서는 불길이 간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수준이었다. 큰 불길이 배연구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은 오후 8시 20분경이었으며(그림 18), 약 7분이 더 경과한 시점에서 배연구 차단작

업에 들어갔다. 배연구 차단은 아궁이 차단과 동일했다. 먼저 배연구 덮개돌을 빼내고 배연구 주변부의 흙과 돌을 일부 헐어낸 다음 다시 새로운 흙을 보충하면서 헐어낸 돌을 재활용하여 입구를 틀어막는 것으로 끝났다.



〈그림 17〉 배연구로부터 많은 연기가 나오는 모습



〈그림 18〉 배연구로부터 큰 불이 나오는 모습

3) 곰숯 가마 해체 및 숯 꺼내기

배연구를 틀어막은 후 저녁시간과 이튿날 오후 2시 40분경까지 약 18시간 동안은 숯가마 내부에서 숯 재료들이 연소되고 또 저절로 불씨가 꺼지는 시간이다.[18] 7일 오후 2시 45분경부터 숯가마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두 장인은 일단 숯가마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들을 걷어내고(그림 19), 또 괭이를 사용하여 아궁이 쪽부터 서서히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흙의 일부를 걷어내자, 숯이 한 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불어 여기저기 살아남은 불씨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강○홍 장인은 주변에서 물을 떠다가 남아있는 불씨를 끄고, 고○구 장인은 계속해서 숯가마를 해체하며 숯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였다(그림 20). 숯을 꺼내는 작업에서도 괭이는 필수적인 도구였다. 언제 불씨가 피어올라 화상을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숯가마 내부를 괭이로 파헤치는 작업이 뒤따라야만 했다.

처음 숯가마를 해체하는 단계에서는 속칭 냉발이(그림 21)[19]가 많이

---

18) 숯가마 내부의 숯 재료가 연소되고 불씨가 꺼지는 시간대는 두 장인과 본 연구자를 포함한 영상 촬영 팀도 모두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19) 냉발이는 덜 된 숯을 가리키는데, 자세히 보면 숯 재료의 어느 한쪽이 완전히 타

나와 두 장인도 다소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두 장인은 본격적으로 아궁이 쪽과 배연구 쪽을 서로 나누어 숯 꺼내기 작업을 시작했으며, 크게 세 가지로 숯을 구분하며 분리하였다(그림 22). 즉, 하나는 냉발이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숯(상품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각난 숯이었다.[20]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성을 띠는 온전한 숯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두 장인이 숯가마 해체와 함께 숯 꺼내기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이로써 1박 2일 동안 강○홍 장인과 고○구 장인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한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Ⅳ. 곰숯 제조 재현의 현재적 의미

여기서는 제Ⅲ장에서 정리한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을 통해 얻게 된 현재적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제주도 내의 지역(마을) 축제에서 숯 제조 재현을 행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21] 이번처럼 순순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숯 제조를 재현한 것은 처음이다. 물론 이번 재현 행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장 단순하고 저급한 곰숯을 제조하는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한 선조들의 지혜 찾기나 과거 생활문화의 복원 또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본 연구자는 과거 제주선조들이 행하던 숯 제조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조들의 어떠한 노력과 지혜가 숨어 있었으며, 또 왜 시간과 노동력의 투하에 비해 상대적

지 않았거나 또는 숯 재료가 내부까지 완전히 타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 숯 제조 재현에서 나온 숯은 주변(저지리)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일부를 주고 또 본 연구자가 일부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머지 숯은 모두 두 장인에게 처분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마지막 작업인 불씨 점검과 숯가마 터 정비도 두 장인에게 부탁하여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은 모두 마무리하였다.

21)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인 한경면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및 낙천리가 중심이 되어 격년제로 행사는 '웃드르 축제'에서 2차례 정도 시도된 바 있다.



〈그림 19〉 숯 가마 해체



〈그림 20〉 숯 꺼내기



〈그림 21〉 냉발이



〈그림 22〉 종류별로 숯 구분하기

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숯 제조 활동을 행해왔는지 등에 대한 문화 지리학적 관점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곰숯 제조 재현의 현재적 의미는 되살아 날 것으로 판단된다.

1. 곰숯 제조 재현을 통한 생활문화 자료의 구체성 확보

해방이후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주사회는 한동안 혼돈과 혼란의 시기가 이어졌으며, 제주도민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나할 것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집안의 가장들은 우선적으로 가족들의 목숨과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긴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제주지역의 곰숯 제조 활동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려운 생계를 잇기 위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재

탄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곰숯 제조 전통이 되살아나게 된 것은 제주지역에서도 중산간 마을의 여러 주민들에 의해서였다. 비록 당시의 혼돈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었지만,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여러 주민들은 그나마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숯 제조 기술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만약에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숯 제조 활동도 시간적으로 큰 격차를 두고 있었다면, 그 이후 세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은 벗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숯 제조 기술과 경험이 선친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전수되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식세대들의 숯 제조 기술과 경험도 현시점에서는 완전히 중단된 지 이미 5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숯 제조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을 후세대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 속에서 제주지역의 숯 제조 기술과 경험은 그대로 사장되어야만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분명히 지금의 시대에서는 어렵고 힘든 숯 제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미 연탄과 석유의 시대를 거쳐 전기와 가스로 모든 일상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숯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미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많은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도 오히려 숯의 수요는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상황이라면, 일반 가정에서만큼은 취사용이나 보온용으로 숯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일반식당이나 가정에서도 연료로서, 제습제로서, 방부제로서, 탈취제로서, 살균제로서 숯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과학적인 숯의 기능 분석에 의해 수요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22]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조로부터 어렵게 전수받은 숯 제조 기술과 경험을 마치 '구시대의 산물'처럼 치부하면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

---

22) 최진식·김경목·박행수, 「식품 및 화장품 포장을 위한 숯의 이용」, 『식품과학과 산업』 45(3), 2012, 57쪽.

지에 대해서는 현세대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정리한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 반대로 간혹 연구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간단히 서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그렇지만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제주도의 특정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숯 제조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곰숯 제조와 관련된 생활문화 자료는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곰숯 가마의 축조를 통한 곰숯 제조 재현과정은 과거 제주 전통사회에서 구현되던 경제활동의 한 단면을 복원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동시에 앞으로 차원이 다른 민속지의 작성, 체험프로그램을 동반한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함께 교육적·관광적 활용도를 전제한 지역자료 축적의 관점에서도 나름의 구체성을 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곰숯 제조 재현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찾기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은 물질문명에 빠져 있는 현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자연에 크게 의존하며 생활을 꾸리던 선조들의 노력과 지혜의 소산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 제주 중산간 마을의 여러 주민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회적 불안기에,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거나 또는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많은 식구들을 거느릴 수 없었던 대가족 제도의 불합리성을 숯 제조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했던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에 제주지역의 숯 제조는 어쩌면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현시점에서 평가할 때는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숯을 굽는다는 것 자체가 환경파괴의 한 주범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 전통사회에서 숯 제조 자체가 가족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었다면, 그것은 관점을 달리하여 평가해야만 한다. 가족들의 생명 연장 수단으로서의 숯 제조는 시간적으로 볼 때 해방 이후 제주4·3 사건(1948년)과 한국전쟁(1950년)

을 거치면서 1960년대 초중반경까지 약 20여 년 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볼 때는 주로 중산간 지역과 산간지역의 곶자왈 혹은 오름 등이 입지하는 숲 지대였다. 아울러 현세대 고령자들의 부모세대도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숯 제조 활동을 전개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숯 제조는 대부분 중산간 마을의 주민이거나 곶자왈과 오름 등을 끼고 있는 일부 해안마을 주민들이 중심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의 자연도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시 숯 제조를 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제주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그것도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연자원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데 능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 선조들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분명히 숯 제조는 성장기에 있는 목재를 잘라서 숯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숲 생태계나 식생구조에 부분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제주 선조들이 모든 나무를 싹쓸이 하듯 베어내어 숯 재료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곶자왈이나 오름에 성장하는 나무의 일부를 숯 재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곶자왈이나 오름 사면에 변함없이 숲이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평소에 자원을 채취하는 제주도민들이 자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 선조들은 숯 제조를 행함에 있어서도 자연의 혜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후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저축성 예금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필요한 만큼의 양만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제주 선조들의 지혜는 곰숯 제조의 재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일단 숯 재료로 베어낸 나무들은 굵기와는 상관없이, 또 상품성의 고저를 뛰어넘어 모든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버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또한 곰숯 가마를 해체하여 숯을 가려낼 때에도 냉발이, 온전한 숯(상품용), 조각난 숯(부스러기)으로 구분하여, 냉발이는 다음에 숯을 구울 때 같이 넣어서 구워내고, 조각난 숯은 다소 싼 값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용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집안에서 필요할 때 소중한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주 선조들은 숲에서 자생하는 나무 한 그루는 물론이고, 숯 재료로 잘라낸 나무 한 토막 그리고 일단 숯으로 구워낸 한 조각의 숯도 자연의 귀중한 선물로 여기는 인성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제주 선조들은 하루 종일 숯 재료를 잘라내고, 숯가마를 축조하며 또 숯 제조까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하하는 것에 비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23] 모든 공정에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따라서 숯 제조과정을 통해서도 선조들이 지녀왔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 나아가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태도로부터 후세대들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곰숯 제조 재현의 함의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곰숯 제조 재현에 대한 함축된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의미를 음미해보고, 나아가 전통산업의 소멸과 제주사회에 던져주는, 작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1960~70년대까지 주로 마을단위로 이어지던 제주의 전통적인 경제활동은 숯 제조를 비롯하여 해녀물질(해산물 채취), 대장간(불미) 경영, 전분공장 경영, 정미소 경영, 옹기제조, 관모공예, 목공예, 단추제조 등이 있었으며,[24] 이들 대부분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거나 혹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

23) 정광중, 「저지-청수곶자왈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숯 생산활동」, 『문화역사지리』 27(1), 2015, 107쪽: 당시 숯을 팔러 다녔던 주민들에 의하면, 숯 1짐(약 20kg)에 대죽쌀(수수)은 2되, 쌀은 1~2되 정도로 받을 정도로 시기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었다.

24) 이들 경제활동은 시기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경제활동(숯 제조, 해녀물질, 관모 예, 목공예, 옹기제조 등),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활발했던 경제활동(대장간 경영, 단추제조), 그리고 해방이후에 시작된 경제활동(전분공장 및 정미소 경영)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제 활동은 해녀물질과 정미소 경영 등 일부를 제외하면, 1970년대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거나 축소되어 행해지고 있다.

있다.

위에 명기한 전통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의 경제활동은 제주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제주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한 축이었다. 그러나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해녀 물질을 제외한 다른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던 숯 제조, 대장간, 전분공장 및 정미소 경영, 옹기제조, 관모공예, 목공예, 단추제조 등에 대한 제주지역에서의 공간적인 범위와 분포, 입지적 특성과 발전과정, 지역주민과의 관련성, 해당 경제활동의 소멸시점이나 축소된 시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 등에 대한 조명과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제주도 서부지역 중산간 마을의 곰숯 제조 재현은 이미 사라진 전통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생활문화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이미 사라져버린 전통산업의 활용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전통산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전통산업의 발전과정,[25] 전통산업의 분포실태와 입지적 특성[26], 전통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존립형태[27], 전통산업의 쇠퇴요인과 배경[28] 등을 다룬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결과에서도 새삼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전통산업 자체가 지니는 의미나 부가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 혹은 정보기반사회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다만, 어떤 부문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통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현대문화의 특수성을 접목시킨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숯을 매개체로

---

25)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현욱(1983), 이청일(1985), 한홍렬(1987), 한홍렬(1988) 등이 있다.

26)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한홍렬(1984), 한홍렬(1985), 이학원(1987), 김상수(1990) 등이 있다.

27)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승연(1982), 조창연(1987) 등이 있다.

28)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시정(1977), 이청일(1987) 등이 있다.

하는 하나의 독립된 상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술축적에 따른 신세대용 상품개발이나 숯 기능을 전제한 새로운 분야의 활용방안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29] 신세대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데는 무엇보다도 상품의 기능과 효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연구나 기업적 투자가 촉진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30]

이상의 논의에서, 특히 강조할 수 있는 사실은 큰 틀에서 생각할 때 전통적인 곰숯 제조방법을 원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숯 관련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상품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지역문화 축제에서 과거 선조들의 숯 제조 활동이 어떻게 행해져 왔는지를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적 경험을 쌓고 후세대들에게 전수를 위한 단초를 얻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곰숯 제조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여 정리함과 동시에 영상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31] 제주문화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까지 제주도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행해지던 곰숯 가마에서의 숯 제조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일련의 공정과 특징을 단계별로 파악·정리하여 숯 제조 방식과 관련된 생활문화 자료의

---

29) 하상도·심상국·이춘옥·이재옥, 「숯과 활성탄의 기능성과 연구 동향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36(2), 003, 101-103쪽.

30) 최진식·김경목·박행수, 「식품 및 화장품 포장을 위한 숯의 이용」, 『식품과학과 산업』 45(3), 2012: 숯을 활용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식품은 물론이고 화장품을 포장하는 데도 숯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 곰숯 제조와 관련된 영상자료는 제주지역 방송국인 KCTV에서 촬영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자료로 보관중이며, 더불어 본 연구에 도움을 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서귀포시 소재), 제주 고고학연구소(재) 및 본 연구자도 소유하고 있다.

구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재시점에서 과거 생활문화의 복원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곰숯은 1960년대 초까지 제주도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던 숯의 한 종류로서 곰숯을 제조하는 곰숯 가마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여성들도 손쉽게 축조하여 숯을 제조할 수 있는 숯가마였다. 그리고 곰숯 가마는 외형적으로는 지면을 직사각형으로 얇게 흙을 파낸 후, 숯 재료를 쌓아올리며 상부는 아치형이고 높이는 대략 1m 전후의 숯가마이다.

둘째로, 곰숯 가마의 축조를 통해 재현한 곰숯 제조과정은 크게 사전준비 과정과 본격적인 숯 제조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사전준비 과정은 도구 및 재료(숯 재료, 귀밀) 챙기기, 숯가마 터 선정과 땅고르기, 숯 재료 운반 및 확보(일부 보충) 등이 중심이었으며, 본격적인 숯 제조과정은 숯 재료 쌓기와 곰숯 가마 축조, 불 때기, 아궁이 차단 및 배연구 차단, 곰숯 가마 해체 및 숯 꺼내기 순으로 행해졌다. 이처럼 곰숯 가마에서 곰숯을 제조하는 과정은 공정상으로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곰숯을 재현하는 현장에서는 매 공정마다 장인들의 경험과 솜씨 그리고 집요할 정도의 온갖 정성과 노력이 뒤따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로, 곰숯 제조의 재현을 통한 현재적 의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곰숯 제조 재현을 통한 생활문화 자료의 구체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주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던 숯 제조과정에 대한 단계별 공정의 복원을 통해 과거 제주지역의 경제활동과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역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숯 제조 재현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 찾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선조들의 자연자원 이용방식은 물론이고 숯 제조를 통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후세대들의 현대적인 삶 속에서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숯 제조 재현의 함의와 관련해서는 과거 선조들의 생활문화의 복원을 통해 제주문화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서부지역에서 만들어지던 숯의 한 종류로서 곰숯 제조의 재현을 통해 생활문화 자료의 축적과 현재적 의미를

검토 분석하였지만, 앞으로는 곰숯과 대비되는 말숯(혹은 작대기숯) 제조의 재현을 통해 생활문화 자료의 확보와 함께 그 잠재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고시홍, 「생업민속-숯 굽는 이야기」, 『제주학』 창간호, 제주학연구소, 1998.

국립산림과학원, 「곶자왈의 역사유적 및 문화자원 가치 평가와 활용 연구」, 『2014 위탁연구 과제 보고서』, 국립산림과학원, 2014.

권혁준, 「인제군의 무형문화-뗏목아리랑과 숯가마 등치기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18, 2004.

김상수, 「조선후기 도자기업의 입지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16, 1990.

박민일, 「한국 산림산업속 연구」, 『강원문화연구』 8, 1988.

박봉우, 「참나무 숯-참나무와 우리생활-」, 숲과문화연구회 편, 『숲과 문화(총서)』, 1995.

새가정사 편집부, 「숯이 건강에 유익하다」, 『새가정』 501, 1999.

이시정, 「우리나라 한지공업의 역사지리적 고찰: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군자사회』 4, 1977.

이청일, 「한국전통 수공업의 역사적 배경」, 『동국지리』 6, 1985.

_____, 「한국 전통한지 수공업 연구」, 『동국지리』 8, 1987.

이학원, 「조선시대 강원도의 가내수공업 종류와 분포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4, 1987.

이현욱, 「목포시 요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무등지리』 창간호, 1983.

정광중·강성기·최형순·김찬수, 「제주 선흘 곶자왈에서의 숯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 지리학회지』 23(4), 2013.

정광중, 「저지-청수곶자왈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숯 생산활동」, 『문화역사지리』 27(1), 2015.

조승현, 「보성 완석생산의 구조와 존립형태」, 『전남대 사회과학논총』 10, 1982.

조창연, 「도정업에 관한 지리적 연구-정안, 의당면을 사례로-」, 『공주사대논문집』 25, 1987.

최진식·김경목·박행수, 「식품 및 화장품 포장을 위한 숯의 이용」, 『식품과학과 산업』 45(3), 2012.

하상도·심상국·이춘옥·이재옥, 「숯과 활성탄의 기능성과 연구 동향 분석」, 『식품

과학과 산업』 36(2), 2003.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숯"의 무궁무진한 비밀-숯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산림경영』 195, 2010.

한홍렬, 「강화 완초 수공업과 입지 변동에 관한 연구」, 『청주사대논문집』 13, 1984.

_____, 「한국의 유기공업과 입지에 관한 연구-안성 유기공업을 중심으로-」, 『청주사대논문집』 16, 1985.

_____, 「한국재래공업의 지리적 발전과정(Ⅰ) : 토기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12, 1987.

_____, 「한국재래공업의 지리적 발전과정-고려시대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서원대논문집』 22, 1988.

Abstract

The Process of Reenacting Charcoal-making and the Exploration of its Contemporary Meaning
—Focusing on a case of gomsoot kiln in Jeju Island—

Jeong, Kwang-Joo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msoot is a type of charcoal that was most commonly made in mountain villages of western Jeju Island up to the early 1960s. Gomsoot kiln is regarded as a relatively small-sized kiln that even women can set up easily. Second, the gomsoot-making process reenacted through setting up the gomsoot kiln is largely classified into a preparatory process and a charcoal-making process.

The preparatory process is focused on preparing tools and materials (e.g. raw materials of charcoal, oats), selecting a kiln site and ground levelling, and transporting and securing the raw materials of charcoal, and the charcoal-making process i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stacking the raw materials of charcoal, setting up a gomsoot kiln, burning raw materials in the kiln, closing the opening of the kiln and establishing a smoke outlet mechanism, dismantling the kiln and taking out the charcoals. Third,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reenactment of charcoal-making can be described from three perspectives.

From a cultur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reenactment of

* 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charcoal-making can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understanding the regional specific and uniqueness of Jeju Island culture through the reenactment of our ancestors' lifestyles. Next, the regional materials utilized in the past economic activities and lifestyles of Jeju Island residents can be concretely secur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charcoal-making processes by stages and in the process a bett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Jeju society can be acquired. And, not only can we gain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material conditions existing among our ancestors on Jeju Island but we can also appreciate and respect the intelligence and wisdom they demonstrated in overcoming difficulties related to household economy through charcoal-making. These lessons can be instructive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 Key Words : Jeju Island, gomsoot(a type of charcoal), gomsoot kiln, reenactment of charcoal-making, Jeju Island culture

교신 : 정광중 63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화북1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사회과교육전공
(E-mail : jeongkj@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8. 04.**
심사완료일 **2016. 10. 04.**
게재확정일 **2016. 10. 07.**